

제34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권문의 삶과 멋, 영주에서 즐기자



권오국 준비위원장 개회선언



권오현 대회장



일본 종친회원 일동

제34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 체육대회가 4월 25일(토) 오전 10시 영주시 순흥면 선비세상 1에 위치한 영주 선비세상 일원에서 전국 29개 선수단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문의 삶과 멋, 영주에서 즐기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대회는 안동권씨 대종회(회장 권영창)와 안동권씨 영주종친회(회장 권중수)가 후원하고 대회장 권오현, 준비위원장 권오국, 사무국장 권영일, 사무차장 권성환 등 영주청년회가 주관했다.

개회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권현숙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소백색소폰 동호회 8명이 음악을 연주하며 분위기를 띄웠다.

개회식은 컨벤션홀에서 영주청년회 권봉준의 사회로 개회선언, 내빈 소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환영사, 대회사, 격려사, 축사, 감사패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외빈으로는 권영창 대종회 회장, 임종득 국회의원, 박성만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 김병기 영주시의회 의장, 권영철 일본종친회장, 권중근 파종회장협의회 회장, 권태호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태정 검교공파 회장, 권우영 종파 회장, 권영상 북야공파 회장, 권은진 효장공파 회장, 권혁우 강릉종친회장, 권용기 대전종친회장, 권오홍 경산종

친회장, 권영현 부산종친회장, 권오수 마산종친회장, 권영범 산청종친회장, 권영복 서울종친회장, 권철환 안동종친회장, 권순호 안양종친회장, 권중수 영주종친회장, 권이호 울산종친회장, 권오덕 의성종친회장, 권영익 원주종친회장, 권성규 합천종친회장, 권병규 횡성종친회장, 권기수, 권수용, 권정길 상임위원, 권용준 부회장, 권동원 추밀공파 참의공 종중 이사장, 권병돈 전 상임위원, 권병돈 추밀공파 정간공 종중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특히 대구종친회 권규민(초등5), 권영민(초등4), 권도훈(초등6), 권은율(초등4), 권시원(초등3) 등 어린 학생들이 참석하여 큰 소리로 애국가를 불렀다. 예전에서는 권오준(초등2), 권은율(초등4) 학생이 엄마와 아빠를 따라 참석했다. 부스 본부석에서는 권나영씨와 권동욱(대학2)씨가 행사진행 요원으로 구슬땀을 흘렸다. 권수봉 가수는 권문의 노래를 멋지게 불렀다. 권오국 준비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했다. 권중수 회장은 환영사에서 권문의 잔치에 오신 것을 환영한다. 송조이념을 가슴에 새기고 한마음으로 즐겁게 많은 추억 간직하고 돌아가시길 바란다 말했다.

권오현 대회장은 대회사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다. 4월 끝자락인데 행사에 참석해 주셔서 내외귀빈께 진심으로 감사

하다. 사실 지난해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인근지역에 큰 산불이 나는 바람에 개최하지 못했다. 피해를 입은 종친계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권문의 삶과 멋, 영주에서 즐기자”라는 슬로건으로 대회를 준비했다. 여러분께서 참여하고 협동심을 발휘하고 지역에 맛을 즐기시길 바란다. 소수서원 관리소장이 우리 족친인데 이번 행사를 위해 소수서원과 소수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해 주셨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이 참석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나오는 금성당에 가보셨으면 한다. 그동안 준비해 주신 영주종친회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말했다.

권영창 회장은 격려사에서 영주종친회 권중수 화장과 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영주청장년회장과 임원 여러분 큰 고생하셨습니다.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임종득 의원님, 박성만 의장님, 김병기 의장님 바쁘신데도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대종회 임원으로 상임위원들이 많이 오셨고, 권중근 파종회장협의회 회장과 권태호 지역종친회장협의회 회장 등 어려운 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선비세상으로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선비촌이 있고, 소수박물관이 있고, 소수서원과 금



대구종친회 권규민(초등5) 등



가수 권수봉 권문의 노래 열창



영예의 우승 강릉종친회



한옥촌 관람



권동욱(대학2), 권나영



제기차기

2026년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과 낭중공(郎中公) 춘향제(春享祭) 봉행

권기 1097년 4월 6일(월, 음력 2월 19일) 안동시 서후면 성곡리 393 능동재사(陵洞齋舍)에서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춘향제를 봉행했다. 봄비로 인해 묘제를 지내지 못하고 망제(望祭)로 대신했다.

권영창 대종회장을 비롯해 권정창 전 제례위원장, 권오돈 추밀공파 회장, 권오신 좌윤공파회장, 권영현 부산종친회장, 권영복 서울지역종친회장, 권중수 영주종친회장, 권정길 상임위원, 권동원 추밀공파 참의공종중 이사장, 권현종 부호장공파회장, 권병돈 전 정간공 종중 회장,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 권순호 추밀공파 매헌공 종중 고문, 권혁무 경주운곡서원 운영위원장, 권용주 선군관유도회안동지부 회장,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장, 권기섭 능곡회장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부산종친회와 대전과 영주종친회에서는 대형버스도 다른 참여자들은 80여대의 승용차로 참석하였다.

오전 9시 30분 분정례를 시작하였다. 시조 태사공 향사에는 초헌관 권익찬(權益贊), 아헌관 권양호(權養浩), 종헌관 권혁근(權赫根), 축관 권경원(權經源)



축), 잔차 권혁태(權赫泰)로 각각 분정되었다. 낭중공 분정은 초헌관 권정창(權正昌), 아헌관 권용주(權容周), 종헌관 권영현(權英鉉), 축관 권도현(權渡玪), 잔차 권중주(權琮周)로 분정하였다. 제례는 비가 오는 관계로 능동재사 마루에서 찬자의 흥기(湧記)에 따라 봉행하였다. 1시간 30분에 걸친 춘향제를 모두 마치고 헌관은 음복례를 하고, 참

제관들은 능동재사와 마당의 천막에서 국립으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추밀공파 참의공 종중(이사장 권동원)에서는 대종회에 시조 태사공과 낭중공 춘향제 제수비(祭需費)로 써달라며 1천 1백만원을 헌성했다. 대전 참의공 종중은 지난 2017년 춘향제 때에도 제수 성공으로 1천만원을 기탁한 바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



성단이 있다. 역사적으로 책에 나올 만큼 유명한 곳이다. 선비정신을 많이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하고 여러분 건강하시고 대종회의 무궁한 발전과 각 지역종친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임종득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신록의 계절에 제34회 안동권씨 전국청장년체육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멋진 행사를 준비하신 권영창 회장님, 권중수 회장님, 권오현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준비하신 반찬 한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국 각 지역종친회 여러분께서 영주까지 오셔서 보기 좋고 자랑스럽다. 일본 오사카에서도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동권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성씨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 그래서 저도 안동권씨 장모님을 두었다. 봉화이다. 안동권씨는 고려와 조선시

대 권문세가로서 고려와 조선을 이끌어왔다. 대한민국에 들어서서도 정치 경제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마음껏 즐기시고 회포도 푸시고 자부심 느낄 수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란다. 영주에 불거리도 많고, 인삼 한우 등 먹거리도 많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만 의장은 “유서 깊은 선비촌에 대한민국의 최고인 안동권씨 여러분이 오신 것을 도민을 대신해서 축하드립니다. 권영창 회장, 권중수 회장, 권오현 회장, 권오국 조 직위원장과 청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며, “밀양박씨인데 오늘은 권성만이 되면 좋겠다. 권씨 한 글자에 자존심과 자부심을 찾아가는 멋진 시간 되시길 바란다. 선비정신의 4대 덕목이 뉘냐면 의리와 정의, 그리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엄지와 우아함이다. 멋진 추억이 되시고 안동권씨의 명성 떨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기 시의회 의장은 “유서 깊은 천년고찰 부석사 방문해서 구경 잘 하시고 회초 사액서원 소수서원도 들리고 인삼 한 보따리 들고 가시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철 일본오사카종친회장은 서투른 한국말로 “반갑습니다. 운동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쁩니다. 안

동권씨 사람들 보니 기쁩니다. 큰딸과 같이 왔습니다. 큰딸도 한글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 멋진 장소에 이렇게 다 모여 있어서 감동하고 있습니다. 일가 모두 사랑해요”라고 말했다. 큰딸은 권민자이고 일본에서는 11명이 참석했다.

개회식이 끝나자 잔디광장에 마련되어 있는 각 지역 부스에서 화기에예하게 준비해온 각 지방의 먹거리를 나누어 먹기도 하고, 지하 식당에서도 주회측에서 준비한 점심을 먹었다.

주회측은 각 지역 선수단은 선비마당에서는 제기차기와 투호놀이, 또한 한옥촌, 한복촌, 한식촌, 한글촌을 관람하는 참여인원으로 점수를 부여했다.

최종 영예의 우승에는 강릉선수단이, 준우승은 예천선수단이, 3등에는 영천선수단이 차지했다.

제34회 안동권씨 전국 청장년체육대회를 마치고 차기 개최지가 정해지지 않아 관계자를 비롯 족친들의 걱정이 많았으나 이번 전국체육대회 회장단 회의를 통해 내년에는 안동 능곡회에서 차기 체육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다. 안동권문의 전통과 역사가 끊기지 않도록 큰 결단을 내리준 능곡회에 경의를 표한다. 권행완 편집국장



투호놀이

안동권씨 부산등산회 4월 산행기



안동권씨 부산종친회 산하 등산회(회장 권영인)는 지난 3월 28일 토요일을 맞아 정기 산행에 나섰다. 이날 행선지는 부산 해운대 해파랑길 1

코스로 10시에 해운대역 만남의 광장에 집결하도록 정해져 있다. 15분쯤 전에 도착했는데 총무와 일행 4~5명이 먼저 와 있었다.

야속 시간이 되어 참석한 20여 명이 해운대해수욕장 쪽으로 출발하였다. 해수욕장을 끼고 걷다 보니 미포의 블루라인 파크 정류장이 나온다. 총무의 전언에 따르면 본래 계획은 해변 열차표를 사서 송정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 걸어서 오려 했는데 주말은 2-3일 전에 예매가 끝나는 걸 몰라 미처 표를 구하지 못했다며, 인기가 이리 많은 줄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하느 수 없어 청사포를 향해 걷기로 했다. 부산에 살고 있지만 이 해파랑길은 맑은 동해와 주변 해안 절경을 보면서 걷기에 참 좋은 코스다. 일가끼리 어울려 걷는 우리에겐 더없이 기분 좋고 재미나는 시간이었다. 타지에서 온 여행객도 해변 열차만 고집하지 말고 걸어보라고 권하

고 싶어진다. 40여 분을 걸고 나니 달맞이 언덕 아래 터널 뚫린다.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면서 음료수도 한 잔씩 마셨다. 다시, 싱싱한 회로 유명한 청사포를 향해 걷는데 문득 나타난 바닷가 소나무 숲이 장관이다. 청사포 정류장을 지나자 해월 전망대가 나온다. 해월 전망대는 세운지 얼마 되지 않아선지 대부분 처음이란 다. 전망대 끝부분 바다를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내려다 보면 출렁대는 바닷물에 어지럽증이 있다. 노인이나 어지럼을 타는 분은 되돌아오기도 했다. 우리 회원도 몇몇은 겁을 먹고 돌아 나왔다. 이곳은 사진 찍기에 명소이다.

해월 전망대에서 다릿돌 전망대를 거쳐 구덕포 간이 정류장역을 지나니 바로 송정 바닷가이다. 식당 하나를 잡고 보니, 주문한 회 정식도 깔끔하고 회도 맛나 절로 술은 부른다. 소주, 맥주, 막걸리를 취향 따라 골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 세

상 사는 이야기로 재미와 웃음꽃을 피우고, 힘들게 걸은 보람도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다.

식후에는 송정 바닷가에 있는 죽도공원 정소에서 월례회를 진행하였다.

권영인 회장은 “오늘 많은 회원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장소를 안내할 테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하였으며, 권영현 종친회장도 축사에서 “등산회가 더 많은 사람이, 더 재미있게 더 건강해질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어서 권중원 등산회 고문은 부녀회와 청년회 회장, 총무가 참석해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으며, 참석한 종친이 모두 돌아가며 한마디씩 인사말을 나눈 후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회의를 마무리하였다. 집에 도착해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오늘 걸음 수가 족히 2만보는 되었다. (부산종친회 권영현)

우향계 향사 봉행 및 학술대회 개최

우향계 향사가 5월 4일 10시에 안동 우향각에서 봉행된다. 제례 행사를 마치고 14시부터 안동 유도회관에서 권용주 우향계 회장의 주관으로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우향계(友鄉契)는 1478년(성종 9년)에 결성되었다. 경북 안동 지역의 고성 이씨 1명, 안동 권씨 3명, 흥해 배씨 4명, 영양 남씨 4명, 안강 노씨 1명 등 문중의 50, 60대 사대부 13명이 의기투합해 만든 친목 모임이다. 1903년까지 이어져 오다 일제 강점기 등을 거치며 잠시 중단됐으나 1950년대 후반 부활 되어 후손 100여 명이 지금도 모임을 지속하고 있다. 권행완 편집국장